

지상진료실

치아재이식술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소아치과학교실

우현정 · 손흥규

· 상악 전치가 맹출하는 7-10세 사이에 외상에 의하여 치아가 탈구되어 치과에 내원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 탈구된 치아를 재이식할 때 치료의 성공에 중요한 요인은 치아를 깨끗하고 습한상태로 보존하는 것이다.

· 탈구된 시간과 치아 재이식술 성공률과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30분 이하	90%
30 - 90분	43%
90분 이상	7%

· 치료법에 대하여 간단히 기술하고자 한다.

1. 국소마취 후 연조직 소파술을 시행하고 발치와내 응고된 조직을 제거해준다. 발치와를 조심스럽게 세척한다. 치근막이 제거될 우려가 있으므로 치조골을 굽지않는다.

2. 치아를 발치와 내로 조심스럽게 삽입한다. 치아가 올바른 위치로 삽입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방사선 사진을 촬영한다.

3. 발치와내의 혈병으로 치아가 원위치로 삽입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치아가 재이식된 후 치아의 절단연을 삭제해준다.

4. 강선을 이용한 고정장치의 술식은 다음과 같다.

① 강선을 이용하여 상악 6전치를 고정해 주는데 이때 강선에 의해 치아의 이동이

일어나서는 안된다.

② 6전치의 순면을 37% 인산염으로 1분간 부식시키고 세척, 건조시킨다.

③ 강선을 부식된 치면에 위치시키고 양쪽 견치부토 복합레진으로 고정시킨다.

④ 나머지 4전치를 고정하고 거친 레진 표면을 부드럽게 해준다.

⑤ 고정장치는 10-14일간 위치시켜 둔다. 조직학적으로는 6-8주 위치시켜 두는 것이 유리하지만 치근의 유착이나 흡수의 기회를 줄여 주기 위해서 가능한 고정기간을 줄여주는 것이 좋다.

⑥ 고정장치 장착동안 전치부에 손상이 오지않도록 주의한다.

⑦ 고정장치는 다아아몬드 바를 이용하여 치간부위 강선을 잘라 제거해주고 치면을 부드럽게 해준후 불소로 연마해준다.

5. 수주후 내원하여 치아의 상태를 관찰하고 근관치료를 시행한다.

치근단이 개방된 경우 칼슘하이드록사이드 제재로 치근단 형성유도술을 시도한다. 이에 관한 자세한 술식을 전호에 기술한 바 있다. 치근단이 폐쇄된 경우도 대부분 치수괴사가 나타나므로 근관치료를 시행한다.

· 재이식된 치아의 안정을 위해서 재이식후 반드시 고정장

치를 해준다.

· 재이식 술식후 다음의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1) 치근의 내흡수 또는 의

흡수

2) 치근 유착

<증례>

11세 10개월된 남아로 외상

에 의해 상악 좌측 중절치와 측절치가 탈구된 상태로 내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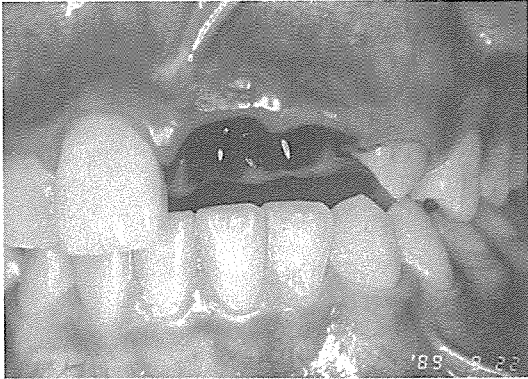


그림 1. 초진시 구강상태. 상악좌측 중절치와 측절치가 탈구됨.



그림 2. 초진시 방사선 사진. 치아는 탈구되었으나 치조골의 파괴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림 3. 구강외에서 탈구된 치아에 근관치료를 시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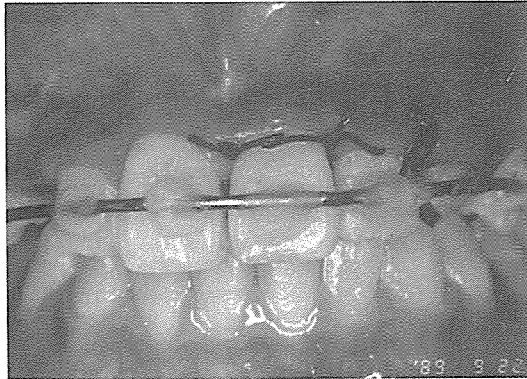


그림 4. 치아를 원위치로 삽입하고 강선으로 고정해준 후의 구강내 사진.



그림 5. 고정장치 장착후의 방사선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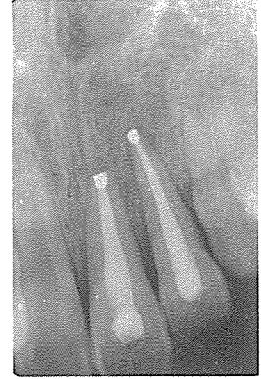


그림 6. 15일 후 고정장치 제거 후의 방사선 사진



그림 7. 4개월 후 방사선 사진.